

종로구민 건강 위한

#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활용



도로용 미세먼지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포장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이용 솔루션

평균 10배 이상 도로 날림 미세먼지 감소

종로구가 주민 건강을 위해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한 종로구는 그동안 여타 자치단체보다 도심 대로에 살수차를 대폭 운행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해

로운 도로 날림 미세먼지가 여전히 도로변에 쌓여 있어 골칫거리였는데, 이에 종로구가 앞으로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을 사용,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킬 방침이다.

도로 날림 미세먼지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로 발생하는 크롬(Cr),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 미세입자와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카본성분의 미세입자들이 다양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자치단체들은 그래서 도로 물청소에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도입하는 사업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종로구도 현재,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지만, 하수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매우 미미한 채 물청소로 미세먼지의 위치만 이동할 뿐 물이 건조되고 나면 다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날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로구는 이에, 포장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이용한 솔루션으로 이를 해소하여 주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내 중소기업 주에 코카미칼이 개발한 비산방지제는 곡물에서 추출한 다당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살수차에 200배 희석하여 살포하는 수용성 제품으로 사용 방법도 간단하면서 별도의 추가설비가 없어 예산적 부담도 적다. 이른바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을 물에 희석하여 도로에 살포하면 도로에 쌓여있던 미세입자들이 인체에 침투할 수 없는 큰 벽으로 응집된다는 것이다. 응집된 먼지가 도로 가장자리에 쌓이면 시스템 도로를 청소하는 진공면 청소차가 이를 제거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도로 날림 미세먼지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그 효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종로구도 이를 전격 도입,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주에코케미칼 측은 "제품 사용 후 실시한 실증 실험에서 물청소와 비교하여 평균 10배 이상 도로 날림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입증됐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용역시험 결과에서도 평균 98%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2 북촌의 날’ 문화축제에서 30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선보여  
북촌 내 공방 연계 공예 체험, 탐방도

연간 북촌 주민의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모습이 담긴 ‘나의 집 북촌 연작 사진전 2020~2022’가 열렸으며, 21일에는 노래하는 한 의사, 북촌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거리 공연을 꿈꾸는 60대 어르신 등 북촌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북촌☆스타’ 콘서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북촌한옥마을 내 공공·민간 공방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서울공공한옥 잠인에게 전통 기법으로 호파, 흥엄, 청화도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열렸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북촌에서 근대건축자산과 북촌에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온·오프라인 북

촌 탐방 프로그램도 열렸으며, 백 년 한옥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어쿠스틱 음악 공연과 북촌의 숨겨진 골목 이야기를 내부자 관점에서 소개하는 강연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았다.

또한 어린이들이 ‘북촌’과 ‘한옥’을 즐길 수 있는 해설, 놀이, 체험, 공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옥을 직접 살펴보고 전통놀이를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축제 주제인 ‘북촌 자음’으로 4행시를 지으면 주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 서울공공한옥 4개소를 사진으로 담는 ‘북촌세컷’ 이벤트, 솟대 소원지 쓰기 등 다양한 현장 행사도 진행되어 종로구 북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제공됐다.



중부교육지원청·서울디자인재단

## 디자인교육 상호협약 체결

창의 디자인교육 개발, 보급 차원



2022년 10월 5일 오후 2시에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지난 5일 서울디자인재단(DDP)과 미래세대 디자인교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활성화와 관내 학교 창의디자인교육의 공공성 확산을 위해 디자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의 디자인교육 역량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교육 경험을 확대하여, 미래의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독 723-5597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주관

##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열려

‘제1회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종로구와 (사)한국귀금속보석 단체장협의회는 종로구 돈화문로 10길(종로3가 8번 출구)와 서순라길 일대에서 종로 주얼리 산업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우수한 귀금속 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종로 우수 주얼리 브랜드 팝업스토어와 나만의 반지 및 팔찌 만들기, 대한민국 명장관(주얼리 감정, 상담), 주얼리 연마 시연, 우수 주얼리 작품 전시, 대한민국 주얼리 100년사 기념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

했다.

또한 오고 가는 시민 누구나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등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보관하면 주얼리의 진가품 감정을 받아볼 수 있게 했으며, 1일 50개 한정 무료로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와 영유아·반려동물 목걸이도 제공하는 특색 이벤트도 열었다.

특히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한 주얼리 거리&서순라길 홍보 스포터즈 ‘순라잡기’ 행사를 전개, 이번 축제 내용을 알차게 만들었다.

이와관련, 정문현 종로구청장은 “공동 브랜드 개발과 AR 기술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판로 확대를 발판 삼아 종로 주얼리 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돈화문로 문화축제’가 지난 15일 돈화문로 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창덕궁 일대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유구한 역사가 깃든 왕의 길로 통하는 돈화문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 앞에 위치한 곳이다. 조선시대 임금이 행차하며 백성을 만나던 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국립국악원의 전신 이왕직야악부(李王職雅樂部, 王립음악기관), 조선성악연구소 등이 있었고, 현재에도 전통 국악기 상점과 교습소가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악의 중심지로 꼽힌다.

종로구는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돈화문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뜻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선보이게 된 올해 축제는 지난 14일 저녁, 묘동사거리에서 열리는 전야제로 시작했다. 국악 전자유랑단이 국악에 생소한 젊은 세대마저 사로잡을 근사한 퓨전 국악 공연을 펼쳐 인기를 끌기도 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는 창덕궁 일대에서 뛰 만들기와 민화 그리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문화해설사와 함께 창덕궁을 걷고 왕의 길 돈화문로가 지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오후 1시부터는 돈화문로에 설치한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에 이어 축하공연을 펼쳤는데, 재즈밴드 더 마스터와 가수 하윤주, 팔도강산국악예술단 등이 출연하여 축제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종로구 지방자치 시대를 30년간 지키면서 지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노고에 경하드립니다.

환경개발(주)

대표 유한심

종복환경개발(주)

대표 이복만

심창기업(주)

대표 정정심

대승기업(주)

대표 허동길

평아실업(주)

대표 구성규

'다시 뛰는 종로'

# “종로구 자치행정 새로운 활력 일으킨다”

정문현 종로구청장, 행정 조직 쇄신 개편

## 종로의 특화된 보건소 체계 전격 개편

### 구정 홍보 전문역량 강화 ‘홍보과’로 재편성

민선 8기 정문현 종로구청장이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한 구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구청장은 지난 11일 자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력을 높이면서 효율적 구정 운영을 위해 민선 8기 종로구 지방자치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구청장이 지난 7월 1일 발표한 취임사를 통해 강조했던 ‘공감대 바탕의 변화와 혁신’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구청 직속기능과 도시 관리국 명칭을 각각 ‘안전환경국’과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문화·교육·도시 분야 전반에 걸친 핵심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국’과 ‘미래도시국’의 경제순을 행

정관리국 다음으로 배치했다.

또한 종로구정 홍보 분야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홍보전산과에서 전신 업무를 이관시켜, 구정 홍보 전문역량을 강화한 ‘홍보과’로 재편성하면서 미디어콘텐츠 제작·개발 기능을 전담할 ‘홍보콘텐츠팀’을 신설했다. 구정 홍보와 구민 소통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 소속 ‘구민소통실’도 홍보과로 전격 이관했다.

또한 구청 자치행정 수요에 따라 팀 신설도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1인 가구지원팀’을 신설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동물보호팀’ 역시 새롭게 구성했다. 반려 동물 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복 증진 일환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에서 종로 구민의 특화된 보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보건소 체계도 정비한 것이 주목을 끈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별사업 제공 형태를 벗어나 통합 운영하는 ‘지역건강과’를 편성하고, 인구특성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담당 주치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거점 POST를 기반으로 보건사업 인력을 배치하면서 운동과 영양, 대사, 치매, 방문, 정신 등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 돌봄 체계를 만들면서 지역사회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외에도 정구청장은 종로구의 복지업무 기능별 수행을 위해 복지경제국 부서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운영 및 정보 통계 업무를 스마트도시과로 통합시켜 ‘주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종로’를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구청장은 “종로구 민선 8기를 맞아 구청 조직을 세밀히 정비하여 종로구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혁신도시 종로의 청사진을 그리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로구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 시스템도 전격 재조정할 방침으로 직원 소통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선 8기 정문현 구청장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한글 사랑 1등 구’

# 한글날 기념 ‘공공언어 교육’ 실시

## 올바른 국어사용 장려, 주민 소통 강화

‘한글 사랑 1등 구’ 종로에서 한글날 기념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종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통인동에서 탄생한 곳이다. 더불어 한글학회(조선어학회)를 비롯해서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 집터가 있고,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 등이 건립되어 있듯이 한글 관련 역사적 관련 유적지가 유독 많다.

종로구는 이처럼 한글과 종로의 오랜 연관성에 주목, 한글날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지난 18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개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면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여 정책 사업 홍보 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종로구는 이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올바른 국어사용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공문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종로구는 한글의 올바른 사용과 보급을 위해 지난 2010년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를 제정하고, 국어책임관을 별도 지정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꾸준히 열고 있다. 구정 소식지 ‘종로사랑’에도 우리 말 바로 알기 항목을 개설, 매월 구민에게 올바른 국어사용을 계도하고 돋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한글 가온 종로’ 책자를 발간해 전국 공공도서관과 각 연구기관에 배부를 한 바 있다. 책 제목 중 ‘가온’은 가운데, 즉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로구가 한글 역사와 문화의 근간임을 상징한다. 훈민정음의 제작 원리와 창제 배경, ‘한글을 빛내고 지킨 역사 속 인물’ 등의 내용도 다뤘다.

이와관련, 정문현 종로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해 공문서 작성이나 구정사업 홍보 시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글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종로가 앞장서서 우리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념하는 취지에서 지난 18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교육’을 개최했다.



## 종로구 홍보송

### ‘얼씨구 종로’ 공연

인사동 가을 음악회

‘풍류대장과 함께하는 인사동 가을음악회’가 지난 16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 야외무대에서 열려 시민의 눈길을 모았다.

우리네 고유 소리가 가진 깊은 멋과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내실 있게 꾸며 진행됐다.

JTBC ‘풍류대장-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최종 우승팀인 서도밴드와 TOP 6에 진출한 국악 악그룹 억스, 품물밴드 이상 등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이날 서도밴드는 ‘아리랑’, ‘사랑가’, ‘백노래’, ‘강강술래’를, 억스는 ‘품바’, ‘풍년가’, ‘새타령’, ‘꺼루리 타령’을 불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크로스오버 국악 홍보송 ‘얼씨구 종로’는 향후 관내 다양한 행사에서 종로구 홍보를 위해 활용되며, 뮤직비디오로도 제작해 업로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평새길이 완공될 경우,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신영교차로 등 종로구 서북지역 일대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9월에 열린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김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종로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로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는데,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주민에게 심각한 교통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서울특별시의 은평새길 건설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종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Q. 종로선한이웃

취소

친구

종로선한이웃

채팅방

종로선한이웃

오전 7:15

채널

종로선한이웃

친구 1 | 상담

종로구는 “위기가구 상시 신고 창구 운영으로 위기가구 신고 및 접수를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및 신고자에게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로선한이웃’을 통해 위기가구가 신고, 접수되면 종로구청 담당자가 신고내용과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위기가구를 의뢰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에서는 즉시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 가구의 위기 상황과 욕구를 확인하고 공적 급여 신청 및 민간자원·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위기구에 대한 사후 조치를 진행한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신고 창구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로 공동체 의심 함양과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서울시 도로계획과 방문, 간담회 가져



## 종로구의회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

신영교차로 등 종로구 서북지역 일대에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9월에 열린 제31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김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종로구의회 전 의원이 공동발의로 ‘은평새길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의결했는데,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주민에게 심각한 교통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서울특별시의 은평새길 건설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종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록마토건

대표 정 천 호

(주)선두건설

대표 서 용 순

(주)삼합개발

대표 서 만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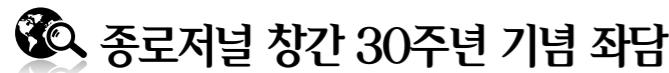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재원산업개발

대표 민 진 홍(건축가)



이 시 훈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일할 수 있어 행복, 하고 싶은 일 합니다”

### “노령화 종로, 젊은 종로가 시급한 과제”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오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9대 구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에는 초선 의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자 했으나 당일 2명의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깨닭에 이시훈 운영위원장과 이미자 의원만 참석, 대화를 나눴다.

제9대 종로구의회 지난 7월 의장단 선출 파동 이후 불협화음을 겪다가 겨우 여야 합의로 의장단 및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에 나섰지만 아직도 상임위원회 복위 원장 선출을 못하고 있는 등 여진을 남기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제315회 임시회를 마치고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제316회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난히도 이번 제9대 종로구의회는 총 11명의 구의원 중 8명이 초선으로서 참신성이 있지만 일면 다소 미숙함도 엿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좌담회를 통해 느끼는 부분은 초선들의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면서도 의욕도 강함을 느꼈다.

이와관련, 이시훈 운영위원장(국민의힘)과 이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좌담 역시 매우 긍정적 반응으로 표출됨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좌담 일문일답 내용.



이 시 훈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 미 자 종로구의회 의원



이 병 기 발행인

#### 젊고 참신한 제9대 종로구의회 열정 돌보여 일할 수 있는 의정 여건 개선 방안도 추진

##### ▲ 100일 지난 제9대 의회에 대한 평가는?

**이미자 의원** = 개원 초기부터 의장단 구성으로 불협화음을 겪으며 흡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 각각의 개성이 강한 만큼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화합을 이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파 간 편가르기는 결코 의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봅니다. 의원 모두가 종로발전과 구민권의 증진을 위해 대표로 나선만큼 서로가 이해와 관용으로 의정 발전에 힘쓸 때라고 봅니다.

**이시훈 의원** = 아직은 제9대 의회에 대한 평가는 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 모두의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는 유난히 젊은 의원이 대거 등원했습니다. 전례없이 젊은 의원이 많은 만큼 어딘가 열의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일거리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종체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 종로 유입은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종로에서 살아 온 입장에서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종로구의회부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이병기 발행인)** = 너무나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말씀드린다. 민선 제1기 정홍진 구청장 시절부터 ‘돌아오는 종로’를 슬로건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전개했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로 발전 과제로서 종로구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지점입니다.

**이시훈 의원** =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로 인구 증가 정책은 집행부의 절대질명 과제입니다. 종체적으로 주거와 복지 그리고 교통 및 생활편의에 대한 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라고 봅니다. 종로구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 등 다양한 해법을 찾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李)

니다. 구의원들의 민원 처리는 신속하면서도 일반 구민의 민원 처리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의 구민을 위한 제도라면 공무원들도 종로구민을 대하는 방식부터 자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자 의원** =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저는 저시작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체적으로 종로는 지금 위기입니다. 노령화를 지나서 노령사회를 진입한 종로는 앞으로 인구 절감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동안 ‘돌아오는 종로’를 외쳐 온지도 20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슬로건만 요란했지 종로구 인구 유입정책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에 대한 유입정책은 매우 요원한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종로로 이사를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체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 종로 유입은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종로에서 살아 온 입장에서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종로구의회부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이병기 발행인)** = 너무나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민선 제1기 정홍진 구청장 시절부터 ‘돌아오는 종로’를 슬로건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전개했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로 발전 과제로서 종로구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지점입니다.

**이시훈 의원** =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종로 인구 증가 정책은 집행부의 절대질명 과제입니다. 종체적으로 주거와 복지 그리고 교통 및 생활편의에 대한 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라고 봅니다. 종로구의회 차원에서도 연구용역 등 다양한 해법을 찾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李)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종로구 지방자치 시대

#### 종로구 발전과 종로구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 새마을회



강 만 성  
새마을회장



최 이 성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심 재 녀  
새마을부녀회장



채 범 규  
새마을문화회장



우 명 육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 의원 정책연구단체 구성

종로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실시  
의원 발의 조례 7건 포함 총 15건 처리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가 지난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와 제9대 종로구의회가 ‘종로’의 달을 달고 출범한 지 100일을 지난 만큼, 2인3각 경기를 함께 뛰는 파트너처럼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높은 성과를 얻어내자”며, “종로구의회도 의원 정책연구단체 3개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의류봉제산업 지원을 비롯해서 국가 보호대상자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원 발의 안건이 7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효율적인 의회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도균은,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과 틈새계층이 견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도 마지막 인사말로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평·명륜 보행특구’ 중앙선 설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정책 추진을 통한 긍정적 효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정적 학습 효과 또한 좋지 않아야 힘을 당부하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제316회 임시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 후 20일부터 21일까지 2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의 의결 후 폐회를 했다.

한편, 이번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7건을 포함한 조례 8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1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 등 총 15건을 심의, 처리했다.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등의안 ▲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운영 등의안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론직필!

종로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문화원**  
원 장 최 창 혁 외 임직원 일동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나온 30년처럼

종로구민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세종 대왕 생가 복원 및  
한글기념관 건립 추진 위원회  
오금남 이사장 (사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공사 장기 지연, 주민 불만 고조

## 사직동 황학정 지하 주차장 등 사업 현장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 내 황학정 앞 지하 주차장 및 도로 하부공간 건축공사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 공사는 황학정 국궁장에서 촬영화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면서 국궁전수관 도로 확장에 따라 지하 주차장 및 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 주민 편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양질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착공했다.

지하 1층 주차장은 연면적 436.41평방미터, 도로 하부공간 주민편의 시설은 183.30평방미터 규모로 건축공사비 8억8천만 원에다가 국유지 매입비 포함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5개월 공사 기간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공사착공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아직도 지하 주차장 공사는 물론 진입로 도로 공사도 인도가 없이 미완이어서 통행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무슨 공사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줄 모르겠다”며 불평을 터트렸다. 주민들은 주민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해서 미망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공사가 계속되는 까닭에 운동도 못할뿐더러 공원 이용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고 불만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은 “공사장 인부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임을 받지 못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며, 어떻게 관급공사에서 인부들이 노임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종로구청 도시녹지과는 “공사 중 지하에서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오는 11월 초에는 공사가 완료될



5개월 공사가 1년 4개월째 지지부진 상태  
지하 암반 탓 하지만 임금 체불 의혹도…

예정이라고 밝힌다.

또한 공사장 일부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녹지과에서는 암반 공사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어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해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결국 관급공사비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면서 그로인해 일부들의 임금 수급에서도 어느 정도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셈인데, 그로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공사 인부들의 주장도 일면 수긍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곳 공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하 암반 탓만이 아니라 공사장 일부들의 인건비 지출에서도 암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딘가 석연치 않은 공사장 내부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주민들은 5개월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 서 주민들의 아침 운동은커녕 통행마저 불편을 겪으면서 하루속히 공사가 완료되길 기대하고 있다.

애시당초 주민 편의시설을 지하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지상으로 만든다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힘든 관급공사이지만 너무도 사설이 늦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드높은 상태다. (李)

## 종합

### 특별 기고

## ‘그리운 옛 어른들’

최병훈 본지 논설 고문



黃梅泉 선생의 ‘매천야록’을 읽어가면 그때는 신문이나 라디오, TV도 없는 시절, 어떻게 팔도강산의 사사건건들을 수집하여 애록을 편찬했는지 신기하고 감탄할 일이다.

이러한 ‘애록’은 세월따라 어느 누군가가 편수해 놓으면 그 시대를 읽는데 도움이 되고 흥미거리도 될 성싶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좌우사상 대립이 극심했던 때 당시 우리나라 농업 국이었고 문맹인이 70% 이상이었고 봄철이 오면 꽃이 피고 강남제비도 있지만 국민들끼는 춘궁기라 하여 보릿고개의 기아 상태가 해마다 보풀이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25일 사변마저 발발하여 세계 최빈국 상태가 되었다.

마침 이승만 대통령의 탄핵한 외교로 UN의 도움을 받아 전란을 수습하고 더욱 이 국가 운명의 명재경쟁인데도 이승만 박사께서는 국가 장래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생의 징집을 연기하여 전답을 팔고 소도 팔아 농민들이 자식을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5·16이후 경제건설의 역군을 대비하게 되었으니 손뼉이 맞은 역사 진전이었다.

뿐만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즈음하여 국가 최고 간부들을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 신의희 대법원장 김병로 국무총리 이범석 혁혁한 독립투쟁 애국자를 모시고 김찰위원장 정인보 기타 장관급에도 친일 인사라 할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이에 반하여 북한에는 국회의장급에는 신사 참배한 강양숙, 만주국 외교 대사를

또 국무회의에서 전진한 초대 사회부 장관이 대통령과 의견 마찰이 있자 전장관이 그 자리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장에서 훌륭이 나온 예는 전무후무한 일이며 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생명을 부지 못했을 것이다.

강직하고 도덕성이 강한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 우남 대통령에게는 정론을 편 분이 북에 납치되어가서는 김일성에게는 어떤 원론을 맹하였는지 심히 궁금하지만 원론 고수 학자로서 자결하지는 못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못본 체 하는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눈물겹게 느껴본다.

우남께서는 전례일실로 3·15부정선거를 단속하지 못해 부정선거를 국민이 항거함은 당연한 국민 기염이라 토하고 시민의 전송을 받고 끝내 하와이에서 영면한 노 애국자이다.

그 후 청와대 주인공들이 많이 교체되었지만 우남이 후배 대통령께 부끄러워할 정도의 인물이 몇분이나 지나갔겠는가 아니한 분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심히 궁금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으며 우남 대통령과 위당 김찰위원장 전진한 장관이 어른들의 옛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특히 정문현 종로구청장은 전진한 장관의 의 손자로서 조부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 관직은 고하고 간에 뜻은 더 크게 빛나게 비추길 바라마지 않는다.

때마침 미수 허목 정승의 외조부이신 백호 일제 선생까지 머릿속에 떠오른다.

2022년 10월

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열린 혁신 · 적극 행정 Q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2. 10. 18.(화) ~ 10. 31.(월) [14일간]

□ 공모자격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고객 참여를 통한 ESG 경영 실현 방안
- 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
- 기타 공단 운영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제안

□ 접수방법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ijongno.co.kr](http://www.ijongno.co.kr)) 열린혁신 정보공개 열린혁신 신청하기
- 전자우편 : [04050@ijongno.co.kr](mailto:04050@ijongno.co.kr)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층 기획감사실(우편번호 03066)
- 전화문의 : 02-3673-4071 공모전 담당자

□ 시상규모

구 분	대 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
상 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 상금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시조씨앤씨  
대표이사 조재교

경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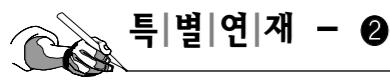
(주)파리바케트 경복궁점

대표류 제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 지방자치 30년사

## “종로 지방자치 주도 세력 변천”

이 병기 (정치학박사)

### 종로구 민선 구청장 4명 여·야 2명씩 배출 지역 발전 새로운 동력, 풀뿌리 정치문화 형성

1991년 전국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995년 민선 구청장이 선출된 이후 27년 간 종로구는 민선 구청장이 총 4번 바뀌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민선 1기 종로구청장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기존 종로의 주도 세력인 토호자치세력이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로 등장한 선거자치세력이 맡았기 때문이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임에 성공하면서 약 6년간 구청장직을 맡은 정홍진 민선 1기 종로구청장은 국회 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 2001년에 사퇴하여 임기 7년 중 6년을 한 셈이다. 1998년 선거에서는 구청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정구청장의 민선 구청장 당선은 마치 ‘날라온 둘이 박힌 돌을 빼내는’ 횡국이었다. 종로구 지방자치 주도권이 민선 초기부터 기득권적 토호자치세력과 선거자치세력이 협의하게 대립하는 구도를 보인 것인데, 이로 인해 양측 간 불협화음도 많았다. 종로구 전통적 주도 세력이 아닌 선거자치세력으로 당선된 정홍진 구청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종로의 토호 중 한 명이 맡았던 종로문화원장을 새롭게 교체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도 자신의 멘토로 갈아 치우는 등 기존의 종로 주도 세력을 외하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각종 직능 및 자생단체의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새롭게 교체시키거나, 교체와 연동된 자신의 세력을 영입하는 등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존의 관변세력 또는 토호세력을 배척하는 등 적지 않은 불갈이 파동을 낳은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이어 탄생한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 구성되는 제2건국운동 범국민단체 설립에 있어서도 자신의 측근 세력 중심의 인적 구성으로 종로 사회 주도 분위기를 일신하여 새로운 주도계층을 형성했다. 새롭게 형성된 신흉 선거자치세력은 은연중 주민들의呼应도 받았다. 기존의 주도 세력에서 배제된 채 지역의 소외적 갈등을 겪었던 일반 주민들은 새로운 주도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자신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정한 신흉 선거자치세력을 섬원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들이었다. 실제로 놀라운 지역의 분위기이면서 일종의 변혁이었다. 그동안 지역의 주도 세력에게 차별받고 소외됐던 민족들의 의식이 갈증을 해소하는 듯한 정서였다. 그 갈증 해소가 바로 지방자치에서 비롯된 지역의 풀뿌리 정치였으며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제가 된 것이다.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풍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 안주하던 토호세력을에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토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종로지역의 새로운 주도 세력 문화를 창출한 선거자치세력들은 그 이후 종로구를 뿐만 아니라 정치의 핵심적 실현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2년 종로 기득권층 출신으로 관변세력 일원이었던 김충용 바른계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장이 민선 제3기 종로구청장이 되면서 종로 사회 분위기는 다시 반전의 양상을 보였다. 또다시 종로 토호 세력 중심의 토착자치세력이 부흥하면서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지난 7년간 일어버렸던 종로 사회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관내 새마을운동과 바른계살기운동 협의회 그리고 종로문화원 등 단체들의장을 다시 기준 토호세력들에게 맡겨지면서 과거의 기득권적 지역 주도권을 재형성했다. 토호세력들의 주도권을 지키던 김충용 구청장이 2006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종로구는 동안 다시 기존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굳혔던 지역 주도권을 어느 정도 원복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의 토호자치세력들을 물리치고 지역의 주도 세력을 형성했던 선거자치세력들도 이미 곳곳에 포진된 채 일정부분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잠재된 저력도 이미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거 중앙집권적 풍토에서처럼 기존의 토호세력이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분위기를 재형성하지는 못했다. 기존의 토호자치세력들도 선거자치세력들과 점진적 타협을 이루며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기에 이를 것이다. 지방자치가 마련한 풀뿌리 정치에서 전통적 주도 세력인 토호자치세력과 선거자치세력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종로 정치문화를 임태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 주도 세력들은 다음번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전략상 풀뿌리 정치를 더욱 활발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제5회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다시 민주당 김영종 후보가 민선 제5기 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종로는 다시 선거자치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형상이었다. 종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주도계층에서 빼앗은 주도권을 7년 만에 일어버렸다가 8년간 비주류로 있던 선거자치세력이 다시 종로의 주도 세력으로 일어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김영종 새 종로구청장은 기존의 선거자치세력과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세력이라는 것이다. 물론 선거자치세력의 일원으로서 그 뿐인 갈지만 김영종 새 구청장은 신흉 선거자치세력 간의 권력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자치세력과 당원 경선을 통해 승리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자치세력이

라기 보다는 새로운 선거자치세력인 것이다. 선거자치세력에는 선거자치세력도 일부 포함됐지만 당원 경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종로 자치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종로구 새로운 자치 세력인 것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후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종로구 주도 세력을 공고히 했는데, 무려 10년 이상 장기적 집권을 하면서 종로 사회를 오히려 호남권 일색으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 장기 집권이 새로운 지역 고착화 속에서 새로운 불평등과 신종 소외의식을 일으킨 것이다.

결국 2022년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종로구 전통 주도 세력 아류인 정문현 구청장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또다시 종로 사회의 주도 세력은 새 국면을 맞는데, 이처럼 종로구 지방자치 주도 세력은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변奏을 한다. 기준 전통적 주도 세력인 토호에서 지방자치 초기 토호자치세력과 선거자치세력 그리고 그 이후 토착자치세력과 경선자치세력이 등장했고 지금은 다시 전통적 주도 세력의 일원인 신흉 주도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근본 배경은 민선 구청장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다. 민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종로구 주도 세력이 변하면서 풀뿌리 정치의 다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지역의 풀뿌리 정치를 태동시키면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시대 고착화된 정치 체제에서 새로운 풀뿌리 정치문화를 임태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주도 세력들이 경쟁과 대결을 하며 보다 새로운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풀뿌리 정치에 주민참여는 크게 늘어나는 양상인데, 이러한 모습이 곧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이며 지역 민주화의 단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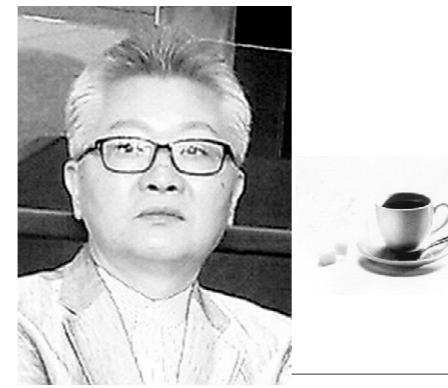
지방자치에서 민선 구청장 선출은 확실히 지역의 정치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면서 주민 정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활성화시킨다. 지역사회 주도 세력 변천과 함께 새로운 동력의 원천을 이루면서 지방자치 문화를 성숙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lt;다음호 계속&gt;

## 【 祝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지나온  
종로저널 30년을  
경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한라기획대표 김동렬



이 병기(정치학박사)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상인은 언제든지 부정직하게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성을 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하는 행동처럼 사회적 인정이나 압력에서 연유하는 행동은 ‘선의지’가 아닌 셈이다. 칸트는 그래서, ‘선의지’는 그 자체로서 보석처럼 빛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언젠가 “무슨 고집으로 30년간 지역신문사를 운영했나?”고 물어보는 인사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 서두가 너무 길었다. 더군다나 칸트의 의무론까지 들먹이면서 거창하게 ‘선의지’를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났다. 범나드 쇼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다. 김대중 총재가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 실시를 약속하면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신문에 뛰어들다 보니 30년 세월을 넘겼다. 중앙집권적 분위기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이행되는 비전에서 나타난 필요적 ‘선의지’였다. 권위주의가 만연된 풍토에서 지역 민주화가 요구되는 충분한 ‘선의지’였다. 그러니까 시

## “지나온 30년처럼 앞으로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꾸벅^~

마디로 ‘결과가 좋으면 옳다’는 윤리이론이다.

하지만 칸트는 공리주의에 반대하며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동기를 중시한다. 행동으로 생긴 결과보다는 행동에 갈린 동기에서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적인 가치는 전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적인 상태에 따라 부여된다. 세상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한 것이 있는게 그것이 바로 ‘선한 의지(Good Will)’다.

‘선의지’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윤리의 기본이다. 마치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과 같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 그 자체가 선(善)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건없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칸트의 정언령령이다.

이와 반대로 어느 상인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모토로 장사를 했다고 쳐 보자. 그 상인은 장기적 안목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랬다면 그것은 ‘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칸트의 ‘선의지’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로서 의무론적 정언령령인 것처럼 무조건 달려왔을 뿐인데이는 그만 30년 세월을 훌쩍 보낸 셈인데, 며칠 전 모 인사는 “창간 30년을 축하한다”면서 “지나온 3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했다. 솔직히 이는 덕담이 아니라 욕설로 들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걸어오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날의 이득을 위해 정직을 모토로 내건 상인도 아니었고, 그냥 ‘효도가 옳다’는 판단으로 시대적 선택을 한 것이 그만 30년 세월을 훌쩍 보낸 셈인데, 며칠 전 모 인사는 “창간 30년을 축하한다”면서 “지나온 3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했다. 솔직히 이는 덕담이 아니라 욕설로 들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걸어오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의 ‘선의지’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로서 의무론적 정언령령인 것처럼 무조건 달려왔을 뿐인데이는 그만 30년 세월을 훌쩍 보낸 셈인데, 며칠 전 모 인사는 “창간 30년을 축하한다”면서 “지나온 3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했다. 솔직히 이는 덕담이 아니라 욕설로 들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걸어오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의 ‘선의지’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로서 의무론적 정언령령인 것처럼 무조건 달려왔을 뿐인데이는 그만 30년 세월을 훌쩍 보낸 셈인데, 며칠 전 모 인사는 “창간 30년을 축하한다”면서 “지나온 3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덕담을 했다. 솔직히 이는 덕담이 아니라 욕설로 들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걸어오고 싶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를 대변하는  
지역언론으로 거듭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론직필!  
종로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지역언론문화  
창달에 노력하시며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인의  
눈과 귀가 되어  
종로발전에 더 큰 행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구 지방자치시대  
구민의 권리증진에  
더욱 앞장서주길  
기대합니다.

